

사생활 등 무단히 촬영하면 500만원으로 상선금 부과합니다.

임핑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동남권 IC 구간 광복 동원도 산동
- (명절 특별행) IC 영수증 프린트 서비스
- 우천시 9월 이후 특별요청정선제 실시
- 예약 : www.hpdynergy.co.kr 0801-320-7700

■ 허정무호 오늘 오후 8시 요르단과 평가전



조재진

조재진 '골사냥' 최전방 나선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답답함에 나선 허정무호가 새로운 '스리톱' 조합을 앞세워 답답했던 공격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5일 오후 8시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최종예선 1차전 상대인 요르단과 평가전을 치른다.

요르단 평가전은 최종예선을 앞둔 허정무호의 훈련 성과를 중간 점검하는 자리다. 무엇보다 올림픽대표팀에서 활약했던 '젊은 피'들이 대거 합류한 상황에서 신구의 조화를 통한 세대교체의 첫 물꼬를 트는 경기라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허정무 감독은 요르단전을 앞두고 10일 오후 9시 상하이에서 치러질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상대인 북한의 빠른 역습과 밀집수비에 대비해 '더 빠르고 세밀한' 축구를 주문했고, 측면 크로스의 질을 높여 확실한 득점 루트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허 감독은 조재진(전북)을 스리톱의 꼭짓점으로 삼고 좌우 측면에 빠른 돌파가 일품인 이천수(수원)와 이정용(서울)을 배치하겠다는 복안이다.

3차 예선에서 공격을 주도했던 박주영(서울)과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소집명단에서 빠진 상황에서 신구의 조화가 이뤄진 새로운 스리톱 라인을 처음 가동하는 것이다.

허 감독이 조재진을 기용했던 것은 지난 3월 26일 북한과 3차 예선 2차전(0-0무)이 마지막이다. 이 때문에 5개월여 만에 허 감독의 부름을 다시 받은 조재진

김치우·이청용과 스리톱 세대교체 첫 시험대 될듯



으로선 골에 대한 욕심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 허 감독은 조재진에게 골 결정뿐 아니라 2선 공격수들의 침투를 위한 공간 창출의 역할을 했다.

목 감기에 걸린 이천수는 컨디션 회복이 필수적이지만 경기에 나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코칭스태프의 판단이다.

하지만 허정무 감독은 이천수의 몸 상태를 고려해 왼발 킥이 좋은 김치우(서울)를 먼저 선발 원포워드로 내보낸 뒤 이천수를 투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치우는 왼쪽 미드필드 지역에서 생기는 프리킥과 코너킥을 전담으로 차출리게 되며, 상황에 따라 왼쪽 풀백으로 자리를 이동할 수도 있다.

허 감독은 4일 파주NFC(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치른 오후 훈련에서 김치우-조재진-이청용 조합을 먼저 투입한 뒤 이천수를 김치우와 교체해 조직력을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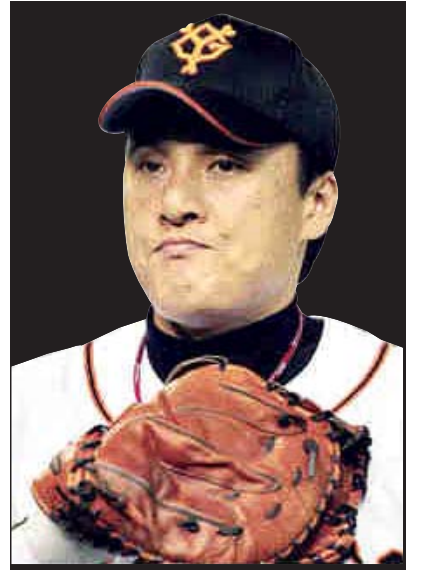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놓고 이천수와 김두현을 저울질했던 코칭스태프는 이천수를 측면 날개로 배치하고 볼 배급 능력이 좋은 김두현에게 공격조율의 역할을 맡기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천수는 원포워드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전방과 2선을 오가면서 상대 수비진을 휘젓게 된다.

"만렙" 김남일(빗셀 고베)과 '막내' 기성용(서울)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 1차 저지선을 쌓는 가운데 좌우 윙백은 김동진(제니트)-오범석(사마라FC)의 '러시아 동맹형' 라인이 책임을 진다.

또 중앙 수비는 올림픽대표팀부터 활약했음을 맞춰 김진규(서울)-김민수(전북) 조합이 선발로 출전할 공산이 크다.

/연합뉴스



이승엽 다시 2군행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사진)이 일주일 만에 다시 2군으로 내려갔다. 요미우리는 4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승엽을 1군 명단에서 빼는 대신 4년차 외야수 인젠 도모야(24)를 승격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이언츠 주포 이승엽이 중차대한 시기 2군으로 내려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군에 외국인 선수를 4명만 등록할 수 있는 규정상 이승엽은 타격 부진이 계속된다면 2군으로 내려간 투수 에드워드 번사이드와 7일째 바통 터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라 다쓰노리 감독은 이승엽을 예정보다 일찍 1군에서 내렸다.

이유는 다각적으로 볼 수 있다. 기대했던 것만큼 이승엽의 장타력이 살아나지 않아서다.

베이징올림픽 일본과 준결승전, 쿠바와 결승전에서 각각 결승 투런 아치를 그리고 금메달 영웅이 된 이승엽은 2군으로 갈 것이라는 애초 전망과 달리 일본에 건너가자마자 곧바로 1군에 등록됐고 지난달 28일 요코하마 베이스타스 전부터 1루수로 선발 출장했다.

2일 히로시마전까지 5경기 연속 선발 출장한 이승엽은 타율 0.421(19타수8안타)을 때리고 2타점을 올리면서 올림픽에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팀에서 바뀐 훈련을 소화하지 못해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지난해 수술한 왼손 엄지 인대 통증이 계속돼 고무리를 계속 착용하는 등 컨디션은 좋지 않았다.

하라 감독은 이승엽의 타격감이 완전히 안고 있다고 판단. 더 늦기 전에 2군으로 보낸 뒤 컨디션이 올라오면 다시 1군에 불러 올리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향후 요미우리 일정과는 맞물린다. 이승엽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기용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면 이승엽은 열흘 후 1군 복귀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대기록·진기록

SK 김성근 감독 통산 1천승 달성

'야구의 신' SK 김성근(66·사진) 감독이 대망의 1천 승을 달성했다. 지난 3일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SK 와이번스가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히어로즈와 홈경기에서 선발 김광현의 호투와 김재현과 김강민의 홈런포로 8-0으로 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김 감독은 1천승을 돌파했고, 김광현은 13승으로 KIA의 윤석민과 함께 다승 공동 1위에 올라섰다.

김 감독은 1984년 OB(두산의 전신)사령탑으로 프로야구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뒤 25년 만에 1천승(892패49무)을 돌파하면서, 김응용 삼성 사장(1천476승)에 이어 두 번째로 1천승 고지에 오른 지도자가 됐다.

현역 최고령 사령탑인 김성근 감독은



OB(1984~1988년)에 이어 태평양(1989~1990년)-삼성(1991~1992년)-쌍방울(1996~1999년)-LG(2001~2002년) 감독을 역임했고, 지난해부터 SK를 맡아 17시즌 동안 최다 팀을 맡은 감독이기도 하다.

김 감독은 OB 사령탑이던 1984년 4월7일 MBC 청룡을 상대로 첫 승을 올린 뒤 삼성 감독이던 1992년 7월4일 태평양과 더블데뷔 1차전에서 500승째를 올렸다. 미국프로야구에서는 코니 맥 감독이 3천731승을 올렸고 일본에서는 쓰루오카 가즈토 감독이 1천773승을 기록했다.

■ 두산-한화 잠실경기 '무박 2일'

사상 첫 연장 18회 5시간 51분 대접전 끝내 밀어내기 승부

“내일 선발투수라도 당겨줘야 하는 것이냐?”

지난 3일 두산 베어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가 펼쳐진 잠실 구장에서는 이런 농담이 나왔다. 이날 잠실 구장을 밝힌 조명탑은 다음날 0시22분까지 꺼질 줄 몰랐고 승부는 장장 18회에 가서야 결정됐다.

'무박 2일'에 거친 프로야구 사상 첫 18회 경기는 18회 말 2사 만루에서 김현수의 끝내기 밀어내기 볼넷이 나오면서 두산의 승리로 끝났다.

지난 6월12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KIA와 히어로즈의 경기가 13일 0시49분에 끝

나면서 사상 첫 '무박 1일' 경기가 됐지만, 중간에 우천으로 55분간 경기가 중단됐기 때문에 4일 0시22분에 끝난 잠실경기가 5시간 51분으로 최장시간 기록을 세웠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후 경기가 15회를 넘어 진행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15회 연장전 경기가 올 시즌 2번을 포함해 모두 14번이 있었지만 16회를 넘은 적은 없었다. 6월 목동구장의 '무박 2일'경기에서도 14회말 승부가 갈렸었다.

이렇다 보니 각종 기록이 줄줄이 수립됐다.

지난 2001년 5월6일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전에서 나온 5시간45분의 경기 시간을 넘어선 것은 물론 사상 최장인 0-0 경기라는 기록도 수립됐다.

1986년 7월27일 당시 청보 핀토스와 해태 타이거즈간 경기가 15회 연장 끝에 0-0 무승부로 끝난 것이 이전 기록이었지만 이날은 무려 17회 말까지 '0'의 행진이 계속됐다.



4일 무안 목포대 체육관에서 열린 '2008 다이소배 전국실업핸드볼대회' 하나은행-H.C경남코로사의 경기에서 하나은행 고경수가 슛을 시도하고 있다. 양팀은 24-24로 비겼다. /연합뉴스

두산 윤경신 '역시 무서워'

상무전 7골 맹활약...승리 견인 女 전남체육회, 대구시청에 패

■ 다이소배 실업핸드볼

두산이 203cm 장신 거포 윤경신의 활약으로 '다이소배 전국실업핸드볼대회' 남자 풀리그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두산은 4일 무안 목포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첫 날 상무와 경기에서 혼자 7골을 터뜨린 윤경신을 앞세워 21-14로 이겼다. 전반을 8-8로 비긴 두산은 고비마다 터진 윤경신의 고공포로 후반 점수 차를 벌리는 데 성공했다.

1995년 경희대를 졸업한 뒤 독일 분데스리가로 진출했다가 2008 베이징올림픽 직전에 두산에 입단한 윤경신은 이날 국내 실업 데뷔전을 치렀다. 여자부 예선 A조 경기에서는 대구시청이 전남체육회를 43-14로 대파했다. 이민지가 14골, 조아람이 9골을 넣은 대구시청은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위해 만들어진 전남체육회에 전반 23-7로 크게 앞서 편안한 1승을 챙겼다.

또 같은 A조의 경남개발공사는 부산시설관리공단을 31-20으로 물리쳤다. 정지희가 10골, 유지영이 6골을 넣으며 역시 전반을 18-7로 끝내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남자 풀리그 하나은행과 H.C 경남코로사전은 24-24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올 전남 전국체전에 총 2만4천25명 참가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린 태극전사들이 이젠 시·도의 명예를 걸고 스포츠 한마당을 펼친다.

대한체육회는 4일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신청을 마감한 결과 16개 시·도에서 선수 1만8천18명, 임원 6천7명 등 총 2만4천25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국체전은 10월1일부터 16일까지 여수를 비롯한 전라남도 일원에서 41개 종목에 걸쳐 펼쳐진다. 참가 인원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천935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천784명으로 뒤를 이었다.

체육회는 11일 여수 전남체육관에서 시·도 대표자 회의를 갖고 토너먼트 종목에 대한 대진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4일 '전국실업핸드볼대회'가 시작됐지만 관중석에는 학교 응원단을 제외하고 일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연합뉴스